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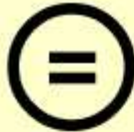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韓日茶道比較研究

-兩國의 茶道精神을 中心으로-

The comparison study of the tea ceremony of both
korea and japan
: by means of the tea ceremony spirit of both countries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朴 美 京

韓日茶道比較研究

-兩國의 茶道精神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
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4月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朴 美 京

박미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6월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i
제 1 장 序 論	1
제 2 장 韓 日 의 茶 道	4
2.1 韓 日 茶 道 의 歷 史	3
2.2 韓 日 茶 道 의 背 景	7
2.3 日 本 茶 道 의 背 景	10
제 3 장 韓 日 의 茶 道 情 神	17
3.1 韓 國 의 茶 道 情 神	17
3.1.1 忠 談 大 師 의 茶 會	19
3.1.2 新 羅 時 代 의 茶 道 情 神	20
3.1.3 茶 禮 에 表 現 된 韓 國 茶 道 精 神	22
3.1.4 茶 書 에 나 타 난 韓 國 의 茶 道 精 神	24
3.2 日 本 의 茶 道 情 神	26
3.2.1 우 라 켜 케 茶 道 情 神	26
3.2.2 리 큐 의 茶 道 情 神	29
3.2.3 와 비 의 茶 道 情 神	32
제 4 장 結 論	38
參 考 文 獻	40

Different Dado culture of korea and japan

park mi kyu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ajor in japanese studies
chosun university
(supervising professor : park chung k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fferent Dado culture korea and japan. the tea mentioned in japanese tea is not showing just a conventional aspect such as demae but spiritual aspect called spirit of tea is co-existing. when mentioning the spirit of tea. what I should consider is the spirit of tea culture different. it plays an important roll to make the tea be considered more than just beverage or just for medical use internationally. And the research of dado culture that sublimated the tea of japan to one of tea culture dado has been studied and fosed on one person named Rikyu.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show how the tea that has been just one of favorite beverage became one of the culture in spirits and to present its historical procedure through three people, juko ,jo, rikyu. japan tea was advocated by murata juko against the exteavagant culture of tea at that moment in the age of Muro machi. The research group consists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ea, whereas the control group consists of people who have never experienced any kind of meditation at all. given that tea meditation is not yet popularized among people,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in composing the

research group. As for measuring the mental health condition of participants, this study utilized a scale that can measure psychological anxiety, and that of patterns and degree of stress.

Rikyu also applied not only Karamono but Wamono to the theory of Wakendairon in the principle of 'One of Tools' It has been similar things to Jo. However Rikyu has created his brilliant creativity and applied it to chanoyu such as not just appreciate the vase without flowers or decorations or so. Also, Rikyu has changed the formation of the room for tea with 4 and half of tatami to 3, 2 or one half of tatami or he referred that chanoyu is just having tea in daily life it is having with boiled water. It means he emphasized chanoyu's casualty. As shown above, Rikyu had strict and sharp aspects on the fundamental of Chanoyu and it is the reason why he is regarded as the man who has completed wabi tea. So to speak, if Wabi tea has combined with 'the spirit of wabi' which is unique concept of beauty that only Japanese has, it is completed and it will be the core of spiritual culture that has been developed by the three people, Murata Juko, Takeno Jo and Senno Rikyu'. And Rikyu's Chanoyu has become the root of the tea culture of Japan and has been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culture of Japan.

제 1 장 序 論

인류는 주어진 자연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가면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어진 여건에 따라 수많은 음료수를 만들거나 마시는 법을 고안하여왔다. 그 가운데 茶는 東洋思想과 결합되어 독특한 茶飮法이 개발되고 傳承되어왔다.

차는 차나무에서 탄 잎으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우린것이다. 차나무는 동백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따뜻한 곳에서 자라며 안개가 많고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한다.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는 크게 4종류로 분류한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불발효차(녹차) 반발효차(중국 산오룡차나 철관음 청차등) 완전발효차(홍차) 후발효차(보이차)로 나눈다

또한 차 잎을 따는 시기와 제조과정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 이름도 수천 종류가 된다. 차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제조과정에 따라 또는 만드는 사람의 취향대로 불혀지기도 하지만 차가 자라나는 산지의 지명 이름이 대표적으로 많다. 차 이름에 따라 재료가 다른 줄 알지만 차잎 한가지로 만들어 수많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우리나라 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雀舌茶와 竹露茶는 차의 품질과 맛을 잘 표현한 이름이다. 작설차는 어린 차 잎이 참새 혀를 닮았다 해 붙혀진 이름이다. 이 작설차는 고려 말의 재상이었던 익제 이재현이 햇차를 보내준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차 잎이 큰 것은 까치 혀를 비유해 작설이라고도 했다. 죽로차는 대나무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로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¹⁾

우리 생활 속에 차가 얼마나 깊이 숨 쉬고 있는가는 일상용어 속에 들어있는 차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일에서부터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일까지를 “다례”라고 하였다. 귀한 손님을 맞아 베푸는 연회를 다연 또는 다과회라 하였으며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교자상을 다담상이라 하였다.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혼한 일을 일컬어 日常茶飯事라 하였으며 행인이 쉬어가는 길가의 휴게소도 주막이라 일컫기 이전에 음차소 또는 다점이 었다. 혼자서 몰두 할 수 있는 사색의 경지를 다도삼매경이라 하였으며 거친 심성을 순화시키면서 스스로 예절과 언행을 다듬는 교실을 다실이라 하였고 응접 세트의 가운데 놓이는 탁자나 티 테이블 따위를 일컬어서는 다정 또는 다탁이라

1) 茶가 있는 삶 (이연자) p273~276

하였다. 일상의 대화를 다담이라 하였고 사람이 만나면 차는 의례적인 것이라 하여 모임을 다회라 불렀다. 또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여러 번 차를 말하며 사는데 그 대표적인 한 마디가 정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차 한잔 하자”이다. 이 한마디엔 따뜻한 정까지 담겨있어 의례의 틀을 벗어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해 준다. 그것이 우리 문화의 본질이요, 예절의 근본이다.

전통사회는 여기에 서로 공손하게 절하고, 덕담 나누는 것 까지를 더하여 차 예절의 기본으로 삼았다. 차가 있는 자리는 의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열한 것만 살펴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꽃이 있고 음악이 있고 우아한 장소가 있다. 도자기 문화가 함께 숨쉬는 가운데 시와 그림이 곁들여진다. 가장 중요한 암시의 가치는 사유 속에서만 살아 숨쉰다.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만 말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놓아둠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으로 완성하게 하는 것이 예술을 애호하고 수용하는 진실한 자세인 것이다. 경계할 것은 행여 종교나 역사에 사로잡히는 따위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주자의 유교를 숭상하면서 모든 불교적인 것을 멀리한 조선이 차만은 받아들여 가례의 일속으로 삼은 이유는 차를 외면하고 민족의 문화나 풍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차는 처세요 사유이다. 안목을 키우고 예술을 수용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차 생활이다. 내 지식 없이 상대 지식을 논할 수 없듯 스스로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나부터 가꾸고 다듬는 노력이다. 나아가 아름답게 산 사람은 아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데서 차는 이상과 현실을 넉넉하게 넘나드는 형이상학적 매개가 되며 각박한 삶에 무한 여유를 선사한다. 또한 70%가 수분인 우리 몸은 물을 잘못 마시면 금세 병이 난다. 차의 가장 큰 효능은 흐린 것을 맑게 하는 것이다. 해독살균능력으로 나쁜 수질에도 차를 넣으면 금세 정화되어 건강수가 된다. 차는 인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섬세한 인격을 지니게 함은 물론 쉽고 편하고 보기 좋고 간단한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의 가볍고 거칠고 급한 심성을 순화시킨다. 잃어버린 차 생활을 부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으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고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차에 대한 愛着과 精誠, 茶飲習慣 등에 의해서

茶道가 와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도는 차를 마시는 지역의 제반 문화적 양상에 의해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일 양국의 다도 사이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基底가 흐르는지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양국 茶道의 외형적 행위 속에 內在해있는 정신세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양국 다도의 특징을 더욱 浮刻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 사이의 類似 혹은 相異한 문화적 일면을 觀照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 2 장 韓日의 茶道

2.1 韓日茶道의 背景

차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언제부터 차를 음료로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삼한시대에 백산차라 불리우는 차가 있었다는 설과 인도로부터 차가 전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확실치 않지만 삼국사기에 「차는 선덕여왕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과 흥덕왕(828년)때에 중국의 차나무 씨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어서 차나무가 자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647년에는 차를 마셨으리라 짐작되어진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661년 가야의 종묘에 시절제사인 차례를 지낼 때 「해마다 세시때면 술과 단술을 빚고 떡, 밥, 차,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 6세기에 차를 嗜好飲料로 마셨으리라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차가 한국에 전래된 연대의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신라시대 부터 차 문화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한국의 茶文化은 사원에서의 차, 의식용품으로서의 차, 생활음료로서의 차등 세 갈래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차 종자를 들여와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차나무가 자라면서 신라인들은 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특히 불교를 국교로 했던 신라는 사찰중심으로 차 문화의 번성이 용이 했으며 일반 백성들까지 폭넓게 차 생활을 즐겼다. 또한 삼국유사를 통해 차가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당시의 의식형태나 그 절차와 격식에 관한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신라의 차 문화를 대표하는 다인으로는 화랑, 원효

대사 그리고 최치원을 꼽을 수 있다. 김극기의 한송정이란 시를 살펴보면 화랑들이 사용했던 다구를 알 수 있는데 차 끓이던 화덕을 ‘다조’라 하였다.

이처럼 화랑들은 산천경계를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가운데 차를 즐겨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원효대사는 인적이 드문 변상의 외딴 암자에서 선에 정진할 때 차를 달여 마시고 당시의 불교가 형식에 치우쳤던 것에 과감히 맞서 불교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그 일련의 과정이 차 생활을 통해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건너갔다가 귀국 후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부귀영화를 한 날 뜬구름처럼 여기고 지팡이를 벗 삼아 방랑하며 곳곳에 많은 시와 일화를 남겼다. 일찍부터 차를 즐겼던 최치원은 중국에 있을 때에 고향의 부모님께 차를 보내드리는 효심을 보였다.

일정한 의식과 관계없이 생활 속에서 차를 즐겼던 신라의 차 생활은 고려시대로 이어지면서 불교문화의 발전과 함께 더 널리 퍼졌고 가장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다 특히 다방이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의 주요행사인 팔관회나 연등회에서 신하가 임금께 차를 올리는 진다의식에 차가 사용될 정도로 차에 대한 의식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차는 국가의식에서 꼭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임금이 불타의 제자를 자처했던 만큼 임금이 손수 불공을 위한 말차를 제조했던 일도 흔하였는데 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귀족과 문인, 학자들이 차를 즐겨 마셨는데 초기에는 주로 귀족중심으로 차 문화가 번성했지만 중기부터는 문인과 학자들이 차 문화를 꽃피우는 주역을 담당했다. 이들은 직접 차를 끓이며 무아의 경지를 맛보고, 차를 마시며 선을 행하고 도에 이르렀다. 대개 문인들은 정자나 초당에서 손쉽게 차를 끓여 마셨고 분위기를 좋게 정원을 가꾸고 다도구의 쓰임과 모양에도 신경을 쓰면서 많은 다시를 남겼다. 고려를 대표하는 다인이자 풍류시인이었던 이규보는 일반 사람들은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유차를 즐겨 마셨는데 유차는 글자 그대로 어린 싹으로 이룬 봄 잔설 사이에서 얻은 것으로 향기며 색깔 맛이 일품이라고 전해진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차는 사랑 받으면서 불교를 더욱 깊이 있게 했고 문화, 예술의 발전과 함께 민족의 인품을 향상시켰다.

고려시대 널리 민중의 사랑을 받던 차는 조선조로 접어들면서 유교가 국교로 되어 억불숭유의 기운에 밀려 급격히 쇠퇴하는 현상을 보였다. 왕실이나 사대부 등을 중심으로 한 선비.귀족 계층에서의 차 생활은 여전히 계속 성행하였지만 고려

시대와는 달리 초기부터 왕실행사에서 의례의 대부분에서 쓰였던 차가 점차 줄고 대신 술이 쓰이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차 생활은 서서히 쇠퇴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차 생활 쇠퇴의 가장 큰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에 차를 즐겨 마시며 공양물로 차를 애용하던 사원에서까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차를 냉수로 대신할 정도로 국가와 사원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워져 차를 계속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데 있었다.

이렇게 차 문화의 명맥이 끊어져 가던 중에 남쪽지방의 일부에서 다시 차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차를 중흥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정약용과 초의, 김정희 등을 들 수 있다.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생활에서 혜장선사로부터 차를 얻어 마시며 적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고 김정희 역시 유배생활을 차로 마음을 달래면서 심취한 후 차에 관한 많은 다시와 일화를 남겨 척박하던 조선시대 차 문화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 다도의 달인 한국의 옥우라고 불려질 만큼 다도에 정진하면서 한국의 차에 대한 우수성을 말한 초의는 다신전과 동다송 저술하였다.

초의는 차의 이름과 품질 차마시는 방법등 실제적인 차생활을 통해 끊임없는 다선수행을 일관성있게 논술하였고 한국 다도의 맥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차를 마시는 여건이 새로 조성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계층에서만 차를 마시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차 문화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차의 생산과 보급등 한국 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다도가 교육되었는데 일본의 다도를 한국에 옮기려는 식민지 교육의 일환이었다. 그후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 차문화 관련 단체들이 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 흡수되어버린 커피와 코코아의 음용습관을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²⁾

한편 日本의 경우, 차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나라시대부터 헤이안시대 초기에 당나라에 파견된 사신 등에 의하여 전래되었다고 한다. 당나라 때에 옥우가 다경 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당시는 단차를 마셨다.

2)韓國의 茶文化-이기윤- p11
韓國의 茶文化-이귀례- p30
茶道 -이기윤- p86

그 후 중국은 송나라 시대가 되어, 단차를 달여 마시는 전다법에서 잎차를 달여 마시는 점다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본에서 송나라로 유학했던 에이사이스님이 차나무 묘목과 다법을 가지고 귀국하여, 깍다양생기라는 책을 내고, 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에게 약으로 현상한 이래, 선원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에이사이스님은 가지고온 차나무를 친구인 묘에 스님에게 나누어주자, 묘에 스님은 교토 도가노오에 차나무를 심었다. 이차는 매우 우수한 차였기 때문에 도가노오에서 기른차를 본차라 하고 다른 곳에서 기른차는 비차라 하게 되었다.

당초 선승들이 자주 마시던 차는 선원에 다례를 남겨 하였고, 차츰 무사계급에도 퍼졌다. 무로마치시대 중기가 되자 무라타주코³⁾가 다이토쿠지의 잇큐스님과 함께 당시의 다도를 선원다례를 중심으로 하는 엄숙한 다례로 고쳤다. 그리고 당시의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를 가까이서 모시던 예술품 상담역인 도호슈⁴⁾가 주코의 다도를 추천하였고, 장군이 적극적으로 주코의 다도를 채택하자, 그때까지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즐기던 다도가 일반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주코 이후에 다도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카이 지방 사람들이었다. 다케노 조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조오는 주코의 다도를 더욱 간소하게 하여 넓은 방인 서원에서 열던 방식에서, 작은방에서 한적하고 차분하게 와비의 분위기가 있는 조암의 차로 바꾸어 갔다. 이 조오의 와비차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센노리큐⁵⁾이다. 리큐는 그때까지의 차 마시는 방식을 다도로 정리하여 정신성을 고양하고 사용하는 다도구도 중국에서 전래된 당물 중심의 다도구를 일본산이나 조선의 것을 사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다도의 모습을 집대성 했다.

당시의 지배자인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리큐의 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다도는 리큐가 대성시킨 다도를 바탕으로 하여 리큐의 자손과 제자에 의하여 계승 발전 되었다.

현재 센씨 가문의 다도는 리큐의 아들 쇼안, 손자 소탄을 거쳐 소탄의 자손에게 계승되어 소시즈가 우라센케를, 소사가 오모테센케를, 소슈가 무샤노코지센케 등의 다도가문을 일으켜 현재도 그 혈맥을 이어 리큐의 다도를 지켜가고 있다.

3) 무라타주코(1423~1502)- 무로마치시대의 다인, 나라에서 태어나 다인으로 뜻을 두고 교토에 가서 선(禪)과 차를 결합시킨 와비차의 세계를 열었다.

4) 도호슈-미술품 감정이나 공연물의 기획 혹은 다도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던 예술활동가

5) 센노리큐(1522~1591)- 아프피모모야마시대에 사카이에서 태어난 다인으로 일본 다도를 대성시켰다.호는 소에키이며, 다법을 정리하며 초암풍의 다실을 완성하였으며, 다도를 민중생활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다도가 메이지시대에 들어서자 새로운 방식을 수립했다. 우라센케 제11대 이에모토 겐겐사이는 다다미에 무릎을 꿇고 하던 방식에 머물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는 류레이식을 창안하고, 그 후에 학교교육이나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도를 다루게 하여 보다 널리 일반인이 다도를 접할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해외에도 보급하여,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⁶⁾

2.2 韓國 茶道의 歷史

차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된다. 4,500년전 염제(炎帝) 신농(神農)때부터 차가 등장한다. 신농이 하루 100가지 약초를 먹고 효능을 시험하다가 몸에 독이 배면 차를 먹고 독을 풀었다고 전한다. 식수가 나쁘고 채소류를 섭취할 수 없는 티베트, 몽골 등 사막이나 고원지대 유목민에게 차는 생필품으로 차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능화가 쓴 조선불교통사에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후가 인도에서 시집을 때 결혼 예물과 같이 차씨를 가져와 김해 백월산에 심었다고 한다.

<김해의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전하기로는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고 한다.>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 제2권 가락국기에 신라 30대 법민왕이 서기661년에 영을 내려 가락국 수로왕은 내 15대조가 되므로 비록 나라는 망했다 해도 사당은 남았으니 제전을 받들도록 하라고 하며 수로왕의 17대손 경세급간으로 하여금 거등왕 당시와 똑같이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과 밥과 차와 과자 등 제수로 제전을 거르지 않도록 하였다.

김해지방에서 내려오는 구전에 수로왕비가 되고자 허황옥 공주가 인도에서 올 때 옥으로 된 함에다 차씨를 담아와 첫 밤을 세운 명월산 에다 차를 심도록 하였다. 명월산의 명월사에는 차를 담당하는 스님이 있었다. 철에 맞추어 차를 궁에 바쳤다. 차는 유명하여 이웃 왜(倭) 에까지 알려져 왜는 사람을 보내어 차를 구해 갔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조 인조때 쓴 김해지 토산조에 고려 충렬왕이 지금의 김해시 다전동 금강골

6) 茶道의 마음-센 겐시즈, 나야소탄 지음 p18

짜기 신라명장 김유신의 수도장 의 차나무를 보고 수레를 멈추고 장군차라고 이름지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 속에 각종 차그릇과 벽돌차가 그려져 있다.

백제의 기록은 없지만 일본에 귀화한 백제의 행기스님이나 왕인박사가 불교와 차와 글을 가르쳤다는 일본의 기록은 백제의 차원 높은 차 문화를 증명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화랑정신은 미륵사상과 차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삼국사기 흥덕왕조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김대립이 차씨를 가져왔다. 왕이 지리산에 심게 했다. 차는 선덕왕때부터 있었는데 이때부터 성하게 되었다.

통도사 사적양록에 선덕왕5년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대장경과 진신사리 , 가사 등 법구일체를 가져와 통도사를 창건했다. 통도사 스님들은 물론이고 불교 관계 전문가들은 자장율사가 가져온 법구일체속에 분명히 차가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부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 금강계단의 주위에는 오래된 차나무들이 그 옛날부터 심어져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했다.

삼국유사에 충담스님이 삼월삼짇날 차그릇이 든 앵통을 메고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하고 오다 경덕왕을 만나 직접 차를 다려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이미 벚꽃나무로 만든 앵통이라는 야외용 차그릇을 넣는 통이 있었다는 것은 차가 생활화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덕왕 인척인 왕족 김교각이 24살 때 중국 안휘성 청양면 구화산에 들어가 화성사를 세웠다. 화성사는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중국4대 명찰의 하나이다. 김교각은 중국에서 김지장으로 불린다. 지장스님이 신라에서 가지고 온 차씨를 이곳에 심고 차 이름을 금지차라 했다. 금지차는 중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명차가 됐다. 금지차는 삼국사기 828년 대립이 중국서 가져온 차씨를 지리산에 심은 때 보다 100년이 앞선다.

강릉 한송정에 화랑의 야외용 차용구인 석지와 석정 석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의 전통과 문화를 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차를 많이 쓰고 했다. 또 궁중에서 왕세자나 공주의 책봉의식, 사신들 영송, 왕실제례, 궁중의 각종 경사스런 행사, 신하의 상가에 왕이 차를 하사했다.

사원에서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차는 필수품이었다. 선비들은 격조 높은 차품을 이루어 많은 차 글을 남기고 있다.

나라 곳곳에 차를 파는 상점과 차정자가 많았으며 일반인의 생활속에 차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의 사신 서긍은 고려도경에 고려인들이 금화오전(金花烏전) 비색소구 청자다완등 화려한 잔과 당호 화로 술은제 잔뚜껑등을 사용했다. 연회 때는 뜰에서 차를 달이기도 하고 주인이 권해야 잔을 들었다고 썼다.

조선 초기에는 절에서 참선의 방편으로 차를 마셨고 민가에서는 설과 추석에 차례라 하여 차로 제사를 모시기까지 했던 것이 차 대신 술만 남게 되는 등 조선조 중기에 들면서부터 차 마시기 풍습은 쇠퇴해 갔다.

국난은 계속 겹쳐 백성의 생활은 빈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혹독한 세금 등 차 마시는 풍습은 점차 사라져 갔다.

퇴계나 율곡도 차를 내거나 차예법 또한 없어졌다고 했다.

병자호란때 판서 나만갑이 쓴 유한록에 청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물품중 엽차 2백담이 있다. 1담의 무게는 40~50kg 2백담이면 10톤의 차가 청나라에 바쳐졌다. 이같은 과분한 차의 조세는 농민들이 차밭에 불을 지르는 등 차밭을 황폐하게 하는 등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조 후기에 다산과 초의스님 추사와 같은 차인들이 나타나 꺼져가는 차의 명맥을 간신히 잇고 있다. 초의스님이 지은 (동다송:우리나라 차를 찬미한 글)은 우리나라 차의 정신과 격조 높은 차생활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지내면서 동다기를 저술하였고 차나무를 가꾸고 역사상 최초의 다신계를 조직했다.

차를 마시면 흥하고 술을 마시면 망한다는 음다홍국론을 주장했다.

추사는 초의스님과 동갑의 나이로 차를 통한 깊은 교우를 맺어 제주도 유배지에 손수 만든 차를 보내기도 하고 차를 심도록 차씨를 보내기도 했다.⁷⁾

7) 茶요리-이연자 p156~160

2.3 日本 茶道の 歴史

차를 마시는 풍습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언제쯤 도래했는지는 확실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치는 않지만, 나라시대에 견당사로 간 승려들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당나라는 이미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음을 육우가 쓴 다경이라는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으로 건너간 견당사들이 당시의 음다법을 배워 차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당시의 차는 지금과는 달리 단차로 찻잎을 찌서 굳힌 것이었다. 나라시대에는 일본에서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쇼무 천황시대에 행다라는 의식이 치러졌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다완이 정창원의 유물중에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나라시대에 이미 차를 마실거리로 이용했던 것 같다.

차나무가 일본에 처음 이식된 것은 헤이안 시대이며 사이초 선사가 당에 건너가 30년 가까이 공부한 에이추 선사와 함께 돌아온 것이 805년 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에이추가 차씨를 가져와 히에잔 산기슭인 사카모토라는 곳에 심었던 것이 시작이다. 그 차나무는 지금도 사카모토에 일부 남아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을 정도이므로 당시는 상당히 번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후기라는 문헌에 의하면 815년 사가 천황이 오미 가라사키에 갔을때 범석사하는 절에 들러 그곳 승려 에이추 선사가 직접 달인 차를 마셨다고 한다. 그 뒤에도 차는 중국에서 수입되어 귀족과 승려사이에 성행했다고 전하는데, 894년 견당사가 폐지되자 일본과 당의 교류도 끊어지면서 차 수입도 중단되었다. 일본에서도 찻잎은 생산되었다고 하지만 당시는 기술부족 탓도 있어 그 후 일시 음다풍습은 쇠퇴하고 말았다.

헤이안 시대 말기가 되면 중국 송과의 교류가 부활된다. 송에 건너간 사람 중에 임제종을 일본에 전한 에이사이 선사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본과 교류가 끊어진 사이에 차가 대단히 발달했다. 그때는 당시대의 단차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차와 같은 상질의 차가 만들어졌고, 사용하는 도구도 상당히 정교한 것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차 내는 작법등도 발전되었던 것 같다. 질 좋은 차와 도구를 1191년 송에서 가지고 돌아온 에이사이 선사는 교토 도가 노오의 묘에 선사

에게 차씨를 선사했다. 그러자 도가노오의 지질이 차나무 성장에 적합했기 때문에 상질의 차가 나오기 시작하여 그곳에 나온 차를 본차 그 외 지역에서 나온 차를 비차로 구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송으로 건너간 승려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차가 생산되고 다시 차 마시는 풍습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런 풍습은 승려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그중에 에이사이 선사는 차가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것 뿐 만 아니라 만인의 병에도 효용이 있는 약이라며 깍다양생기를 집필해 가마쿠라 막부의 3대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에게 헌납했다. 사네토모가 어느 날 숙취로 고생하고 있을때 에이사이 선사가 선약이라며 차를 올리자 금방 숙취가 나았다.

이를 계기로 사네토모가 차를 건강을 위한 묘약으로 인정하자 깍다 풍습은 점점 상유계급, 특히 선승과 교류가 있던 무사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차가 교토에서 가마쿠라로 옮겨가 그곳에서도 유행하면서 송나라에 사용하던 다 도구도 함께 수입하게 된 것이다.

깍다 풍습은 선승에서 점차 무가계급으로 확대되고 무로마치시대 초기가 되면서 이미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된다. 그러나 차가 사치에 빠져 유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무가계급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하고 호화로운 식사를 한 다음 마신 차를 알아맞히는 경합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투차라 한다. 산지가 다른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신다음 그것이 본차인지 비차인지를 맞히면서 상품을 거는 놀이이다. 이처럼 전란시대의 유희로 유행된 차의 형식은 점점 더 성행하여 이를 단속하는 법률이 만들어 질 정도였다. 그 뒤 투차 유행이 잦아들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현재와 비슷한 형식을 가진 다회풍경을 보게 된다.

무로마치시대 중기가 되면 막부의 경제가 어려워져 무가와 귀족들의 생활이 곤궁해지면서 사치스런 다회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리고 8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시대가 되면서 요시마사는 자조사내에 동구당을 세워 조용히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며 승려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차를 즐기게 되었다.

산상종이기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풍류를 즐기며 살던 요시마사는 거의 모든 놀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도보슈였던 노아미를 불러 일찍이 모든 놀이를 답습했기에 이젠 질렸다. 뭐즘 특이한 것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아미는

다도가 있다. 슈코라는 다인이 30년 전부터 즐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요시마사는 바로 슈코를 불러들였다.

슈코는 성이 무라타로 나라의 청명사라는 절의 승려였다. 그후 대덕사의 잇큐 소준문하에 들어가 잇큐와 함께 당시에 성행하던 투차의 악풍을 불식하고 간소하고 차분한 선종 사원의 차 작법을 만들었다. 슈코는 요시마사가 선다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다법이란 오로지 청정하게 하여 선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다법의 극치이며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럼 슈코가 행한 다법의 형식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이전까지의 다회가 화려한 연회였던 것에 반해 차분하고 간소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슈코는 넓은 방에 병풍으로 두른 작은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차를 한 것이다. 다실을 다른 이름으로 가코이(두르다)라 하는것도 여기서 유래한 표현이다. 차를 내는 작법은 자세하지 않지만 차선반을 사용한 데마에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다이스 데마에와 매우 흡사하다고 전한다. 이렇게 요시마사가 차를 애호하기 시작하자 일반 백성에게도 퍼져 거리나 절 앞에서 차를 파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다법은 요시마사를 비롯한 상류계급에서 하는 차와는 달리 아주 간소한 것이었기에 잇푸쿠잇센 차라 불렸다.

슈코는 8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원차를 가장 간소한 차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는 중국에서 들여온 공예품이 최고라 생각하던 당시 중국제(가라모노)도구 일변도에서 비젠도자기와 시가라키도자기와 같은 일본제 다도구를 사용하는 와비초암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시대인 다케노 조오의 와비차 출현에 커다란 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슈코의 노력도 그의 죽음과 전란으로 일시 중단된다. 그리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란을 피해 교토를 떠나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당시 국제 무역항이었던 오사카지방의 사카이를 비롯, 전국 각지로 옮겨갔다.

다케노 조오 역시 사카이로 이주한 다인들 중 한사람이었다. 조오는 1502년 슈코가 사망한 해에 태어나 20살이 넘었을 때 교토로 나와 시문학과 향도 같은 당시로써는 수준 높은 교양을 익혔다. 그리고 차는 슈코의 제자에게 배웠다고 한다. 조오는 슈코가 이상적으로 여긴 초암차를 한층 간소하게 바꾼 소위 와비차를

시작한 것이다.

앞서 말한 요시마사가 세운 은각사에 있는 동인재는 4첩반의 작은 다실로 백지로 만든 장지문에는 산수화가 있는 서원식이었지만, 조오가 만든 대흑암이라는 다실은 매우 질박하고 간소한 것이었다. 조오는 다이스 테마에를 행하면서도 이 로리를 만들어 와비의 풍경을 즐기는 정신적인 면이 강조된 차를 하였던 것이다. 다케노 조오의 와비차 정신을 계승한 것이 센노리큐이다.

리큐의 성은 다나카, 이름은 요시로라고 하며 1522년에 사카이의 이마이치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센아미이고 아시카가 가문의 도보슈로 사카이에 살았다. 리큐가 센씨 성으로부르게 된 것은 조부 센아미의 한 글자를 따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받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헤에로 나야슈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상사와 같은 회사를 경영하였으므로 상당한 지위와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리큐는 어려서부터 차를 배워 16살때에는 당시 유명한 다인을 자신의 다회에 초대했다. 그리고 17살때부터 기타무키 도친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식으로 차를 배우기 시작하여 바로 도친의 소개로 조오의 문하생이 된다. 그 무렵 리큐는 소에키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리큐가 조오에게 입문할 때의 일화가 있다. 그것은 리큐가 조오에게 정원 청소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보니 정원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있어 더 이상 치울 것이 없었다.

리큐는 망설이지 않고 곁에 있던 나무를 흔들어서 잎을 떨어뜨렸다. 이 모습을 본 조오는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리큐가 지닌 뛰어난 감성을 칭찬했다고 한다.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정원보다 자연스레 나뭇잎이 흩어져 있는 정원이 훨씬 운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리큐의 와비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며 이러한 모습을 시중의 산거라 하여 소중한 마음으로 여겼다.

이렇게 리큐는 조오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다도에 정진하고 새로운 다도구의 창조와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미술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그후 일본도예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리큐는 오다 노부나가의 다도 사범을 지냈고, 노부나가가 분농사에서 번사한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다도 사범으로 활동한다. 히데요시는 전란 중에도 틈이 나면 다실에서 리큐가 내는 차를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다. 리큐는 히데요시가 가는 전장에까지 동행하여 진중에서 다회를 열기도 했다.

1585년 히데요시가 처음 궁중에서 다회를 열었을 때 리큐에게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궁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했던 때라 히데요시가 조정에 청원서를 내어 리큐 거사라는 호를 받도록 했다. 리큐가 문서등에 정식으로 리큐라 쓰게 된 것은 이 이후부터이다.

다도는 리큐와 사카이의 다인들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다도를 모르면 사무라이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성행하였다. 결국 히데요시는 1587년에 교토의 기타노신사에서 대다회를 주관하고 리큐도 주최자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활약했다. 이리하여 차츰 리큐는 히데요시에게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뒤 리큐는 대덕사 산문에 금모각을 기증하여 자신의 목상을 안치했다는 것이 후에 문제되어 히데요시에게 할복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것은 1591년 2월28일에 일이다. 히데요시가 할복을 명한 이유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결국,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가 정신적인 면에서는 리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럼 리큐의 차 정신이란 어떤 것일까, 조오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다. 조오의 와비는 꽃이 진 후에 남은 쓸쓸한 세계에 있고, 계절로 말하자면 꽃도 단풍도 다 지고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만추이며, 하루 중에서는 저녁 무렵을 말한다.

아즈치모모야마시대의 호화찬란한 분위기에서 보면 진실로 은둔적이며 홀로 쓸쓸하게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리큐의 와비정신 후지와라 테이카의 와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길고 힘든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눈 속 여기저기서 자연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생명력이 약동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리큐가 생각한 와비라는 것은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새로운 활동력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이는 리큐 자신의 새로운 예술의 창조력을 속에 간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큐의 이러한 와비사상은 당시 활동력이 넘친 다인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었다.

천하제일의 종장으로, 다성으로도 칭송받던 리큐거사의 사후 다도계를 이어간 것은 후루타 오리베였다.

리큐가 히데요시의 분노를 사 사카이 자택으로 돌아갈 때 히데요시가 두려웠던

많은 제자들은 환송을 꺼려했다. 하지만 오리베와 호소카와 산사이는 요도가와의 선착장까지 리큐를 배웅한 제자였다.

그러한 오리베였기에 리큐의 차 정신을 제대로 지켜 갔다. 히데요시는 리큐가 할복한 후 오리베에게 리큐의 차를 그리워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리큐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오리베를 총애한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밖에 리큐의 제자로는 다이묘와 상인등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리큐의 일곱제자라고 불리는 실력자가 무사다인으로서 크게 활약을 했다. 그러나 오리베는 에도시대가 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리큐와 마찬가지로 할복을 명령 받게 되었다. 오리베의 뒤를 이어서 다도계의 제일인자가된 무사다인은 고보리 엔슈라는 다이묘였다. 에도시대가 되면 이러한 다이묘들 사이에 다도가 크게 유행해 다도를 모르는 무장은 수치로 여길 정도가 된다.

이러한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엔슈와 가나모리 소호와 가타기리 세키슈라는 다이묘다인이었다. 에도시대 초기에 유행한 다도를 다이묘차 라고 한다.

리큐의 제자들 중에서도 일파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센케를 중심으로 하여 야부노우치 엔슈 세키슈 소헨 후마이 등 많이 있다. 그러나 다이묘차와는 달리 리큐 자손에 의해 센케다도가 서민들 사이에 크게 퍼져갔다.

센케 성립과 그후 리큐에게 있던 두아들은 리큐가 할복한 후 장남인 도안은 은둔생활을 하고, 차남인 쇼안은 아이즈와카마츠지방의 가모 우지사토에게 가서 피신 생활을 한다.

히데요시가 두차례의 조선 출병을 하는 동안 가모 우지사토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재에 나서 센케는 히데요시의 노여움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센케는 정식으로 차남 쇼안에 의해 재흥의 허가를 받고 현재의 곤니치안이 있는 땅에 거처를 잡게 된다. 장남인 도안은 센케재흥 허가후 사카이로 돌아가 다인으로서 활동을 재개하고 생애를 그곳에서 마친다.

센케를 이은 쇼안은 도쿠가와 가문을 받들게 되는데 오사카성에서 싸운 나즈노 진을 맞기 전에 죽는다. 그 후 와비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다선일미를 제창하여 센케다도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쇼안의 아들이자 리큐의 손자인 소탄이었다. 소탄은 겐파쿠라고도 하고 돗쯔사일라는 재호로 부르기도 한다.

조부인 리큐가 할복할 때 소탄은 아직 14살 소년으로 대덕사의 수행승이었다.

센케 복귀의 명을 받아 대덕사에서 아버지 쇼안의 품으로 돌아간다. 소찬은 센케의 3대를 계승한다. 많은 다이묘들은 그에게 다도 사관(주군이나 다이묘에 봉사하는 사람)을 요청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상인을 상대로 다도를 가르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낸다. 그의 제자들 중에 소탄 사천왕이라는 대다인들이 배출된다.

소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장남인 소세츠는 일찍 집을 나왔고 차남이 소슈도 집을 나와 칠기 수업을 하고 있었다. 소찬은 막내 소시츠가 20살이 되자 불심암을 3남인 소사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소시츠와 함께 다실을 지어 거처를 옮긴다. 이것이 우라센케 곤니치안 다실이며 8첩다실인 한운정 다실이다. 소찬은 그 후 리큐의 4첩반 다실을 정확히 재현한 우은 다실을 세워 거기서 다시 은거 생활을 하며 유서 깊은 다실들을 소시츠에게 물려준다.⁸⁾

우라센케의 4대째를 이은 센소 소시츠는 가가지방의 백만석꾼 다이묘인 마에다가문에서 다도봉행을 하였다. 가가지방에서 우라센케의 4대에모토 소시츠와 함께 성장한 오히도자기는 지금도 대대로 오히다완을 만들며 집안을 이어오고 있다. 차술을 만드는 가문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칸치도 4대 이에모토가 키운 장인이다. 5대 이에모토인 규사이, 그의 아들 6대 릿칸사이, 그뒤를 이은 7대 사이사이사는 모두 저마다 다풍을 수립하였다.

8대를 계승한 유젠사이는 오모테센케의 7대손인 조신사이의 동생으로서 우라센케의 양자로 왔다. 그는 당시 침체되어있던 다도계를 크게 부상시킨 인물로 우라센케의 중흥조로 일컬어진다.

그후 9대 후켄사이와 10대 닌토쿠사이는 유젠사이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11대를 이은 겐젠사이는 미카와의 다이묘 마즈다이라 다누이도노의 아들로써 우라센케의 10대 닌토쿠사이의 양자로 들어왔다. 겐젠사이 시대에 명치유신을 맞이하였지만 이시기는 센케다도에도 중요한 과도기였다. 겐젠사이는 다실을 증축하는 등 우라센케의 면목을 일신시켰다. 명치유신 당시에는 정부가 다도를 유예로서 자리매김한 것에 반발하며 다도의 원의를 집필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다도로서의 차를 인식시켰다. 그리고 1872년 제1회 교토 박람회 때는 외국인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한 류레를 고안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도를 만들어내었다. 겐젠사이의 아들 이치노사이는 17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여동생 유가코는 에도시대 초기 교토의 다가세가와를 만든 명문가 스미노쿠라케의 자식을 사위로 맞았다. 이 사람이 12대 유묘사이입니다. 그 뒤를 이은 이가 13개 엔노사이다. 엔노사이는 명치신정부 이후 사람들이 다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먼저 여 학교에 다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학교

8) 日本茶道の異論과 實記- 우라센케의 茶道 p72~87

다도의 시초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특히 다도를 배우는 여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적을 통한 다도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책이 다도월보로 불리웠던 책으로 전쟁 후에는 담교로 바뀌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엔노사이의 이러한 노력으로 일반대중도 다도를 알게 되었다. 뒤를 이은 곤니치안 14대손 무겐사이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다도를 보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국제다도문화협회」를 설립하였다. 다도 인구 증가에 따라 1940년 11월 25일 담교회를 조직하고 1953년 1월 24일 사단법인체인 전국조직으로 변모시켜 다도문화의 고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 3 장 韓日의 茶道情神

3.1 韓國의 茶道情神

최근 다도와 다례에 관하여 다도는 일본고유의 것이며 한국에는 다도라는 것이 없고 다례이며 중국은 다법이다 라고 하고 한국의 다서에는 다례라는 말은 있어도 다도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의 다서에도 다법 이라는 말은 있어도 다도라는 말은 없다. 라고 말하고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을 살리는 다운동이 아리 다론에도 발견할 수 없는 다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전통계승과 배반되는 행위이며 일본의 것에 추종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하루속히 일본 고유 명사인 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다도라는 말은 어떤 중국다서에도 없는 말 이며, 또 어떤 한국다서에서도 없는 말인가 우리의 다서 연구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우선 손쉬운 다신전, 동다송 등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신전에 보면 차의 보관 부분 이후의 구절에만 봐도 다도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차의 보관 부분을 보자.

차를 만드는데 예는 정성을 다하고 보관할 때에는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하며 탕을 끓일 때에는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정성을 다하고 건조하게 보관하고 청결하게 끓이게 되면 다도를 극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造詩情 藏時操 泡時潔 精操潔 茶道盡矣

여기에 이미 다도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그 다음 다신전 끝머리 가까운 부분에 이르러 다도라는 말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철불원에서 정서하려고 했지만 병이 들어 이루지 못했는데 수홍사미가 그때 시자방에 있으면서 다도를 알고자 정서하려고 했지만 역시 병이 들어 끝내지 못했다.

欲正書 而因病未果 修洪沙彌 時在侍者房 欲知茶道 正沙亦病未終

그리고 또 그다음부분에 보면 우리불가에도 혹은 조주의 풍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도를 완전하게 알수 없기에 써 보지만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叢林或有趙州風 而盡不知茶道 故抄市可謂

그리고 또 동다송 29송 포법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다도란 말이 나오고 있다. 즉, 평해서 말하면 차를 달일 때에는 오묘함을 다하고 차를 만들 때에는 그 정기를 간직하며 물은 참된 물을 얻고 포법에는 중화를 얻으며 체와 신이 즉, 차와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웅건함과 신령스러움을 갖추니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다도를 극진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評曰採盡其妙 造盡其精 水得其眞 泡得其中 體與神相和 健與靈相併 至此而茶道盡矣

여기에서 다도란 글이 이미 나왔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중국의 풍속사 연구가인 봉연의 봉씨문견기에도 다도라는 용어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봉연은 말하기를 육우가 지은 다경에 대해 크게 경모하고 육우의 이론을 널리 운색하여 상백옹이란 사람 또한 그 이론을 펴니 여기에 있어 다도가 크게 일어나 위로는 왕으로부터 조신에 이르기 까지 차를 안 마시는 사람이 없었다.

어시다도대행왕공조사무불음자라는 구절에서도 중국에도 이미 다도라는 말을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우리 조상들도 다도란 말을 써왔고 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 다도는 일본 고유의 것이며 일본에서의 다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 역시 일본 다도사를 어느 정도 연구한 사람이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다도사에 보면 성무천황시대 천평원년 궁중에 백인의 스님을 모아 반야경을 강독하고 이틀째 되는 날 차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하여 헤이안시대 쇼무천왕에 전교대사가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를 가져와 심었

다는 기록과 더불어 사가 천황이 승복사에 갔을 때를 비롯하여 많은 궁중 다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일본 다사에 뚜렷이 있다. 이는 차를 하사받거나 또는 봉차할 때 이에 따르는 예법을 말함이다.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다례가 되는 것이다 또 시대를 경층 뛰어서 일본의 아시카가시대에 들어 와서 대덕사(大德寺)에 있던 珠光은 一休와 뜻이 같이 하여 더욱 엄숙한 茶禮를 했다고 기록한 것 등을 봐도 茶禮란 말이 일본에 쓰여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茶禮가 일본의 千利休때에도 茶禮이름으로서 불리어지기도 했다.

본론에 있어서는 한국 다도정신을 고찰함에 있어 한국 다사에 나타난 다례 및 다인들의 다생활 그리고 다서, 다시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3.1.1 忠談大師의 茶會

삼국유사 景德王(742~764)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 의하면 미륵신도인 충담대사가 미륵세존에게 공차를 하고 난 다음 귀정문의 누상에서 차회를 하였다. 충담대사는 미륵신도인 僧郎이다. 미륵세존에게 차 공양을 하는 것은 崇敬정신의 발로 인지라 이 다례에서 우리는 다도정신의 敬사상을 읽을 수 있다.

다음 귀정누상에서 있었던 왕과 충담대사의 문답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문답은 다음과 같다.

왕이 말을 하였다.

[나에게 차 한사발을 주시겠소?]

스님은 차를 다려 왕께 드렸는데 차 맛이 이상하고 그릇 속에 향기가 그윽했다.

왕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데 스님께서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한 사뇌가(詞腦歌)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그렇다.]

왕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를 지어 주오.]

스님은 즉시 명을 받들어 지어 바치었다. 왕은 그를 가상히 여겨 왕사로 봉하니 스님은 두 번 거듭 절하고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충담대사가 손수 차를 마련하여 경덕왕에게 헌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왕을 위해 안민가를 즉석에서 지어 드린 것. 그리고 왕께서 왕사로 봉했으나 사절한 것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차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敬사상과 더불어 헌차의 화해로움을 알 수 있어 다도사상의 和敬을 점 칠 수 있으며 특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왕이 충담대사를 왕사로 봉하였으나 충담대사는 두 번 거듭 절하고 굳이 사양하였다는 대목이다.

진리 즉, 깨달음의 길을 찾는 구도승인 충담대사에게 있어서는 세간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왕사 따위는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사의 높은 절조와 思無邪한 眞性の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국 다도정신의 和·敬·眞사상을 엿 볼 수 있다.

3.1.2 新羅時代의 茶道情神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서(鸞郎卑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풍류라 이른다. 그 教의 起源은 仙史에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實로 이는 三教를 포함하여 衆生을 교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집에 들어오면 효를 다하고,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관(魯司冠)의 뜻대로이며, 그 한없는 일을 당하여 말없는 教를 행하는 것은 周柱司의 宗旨를 다함이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함은

쓰乾太子(축건태자)의 교화 그대로다. 이병도氏는 화랑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和合, 忠節의 德을 소중히 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崇敬의 念이 강하고 담백 청결했으며 산천초목등 자연에 대한 한없는 환희와 신비감을 가졌다고 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랑의 기상은 유, 불, 선의 장점을 산천에의 주유와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며 또 차와 더불어 체득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라시대의 화랑정신은 이를 和合, 忠節, 崇敬, 清淨 그리고 자연과의 靈交로 인한 自得으로 요약 할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신라시대의 화랑의 다도정신을 和忠敬 清 自得 眞이라고 말하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라 화랑들은 산천을 주유하여 산천과 영교(靈交)하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고 깨달음의 인간 됄됨이를 이룩하는데 노력

하였다. 이런 까닭에 김대문의 화랑세기에서 말하기를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뛰어난 장사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려사 문집에 보면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사용하였던 돌차부뚜막, 돌 못, 돌우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화랑의 다구 유물인 차부뚜막 등을 시로 읊은 것은 김극기(金克己:1148~1209) 등을 비롯 이제현(李齊賢:1287~1367)등도 있으나 [한송정]이라 제하여 읊은 시인은 이곡(利穀:1298~1351) 및 안축(安軸:1287~1348)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안축의 [한송정을 쓰다]라는 다시를 감평하는 동시에 화랑들의 四仙茶會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안축의[한송정을 쓰다(題寒松亭)]라는 다시부터 감상해 보기로 하겠다.

네 화랑이 일찍이 이곳에서 모였으니
손님은 맹상군의 문 앞 같았으리
화랑들 구름처럼 자취도 없고
푸른 관송은 불타 흔적도 없네
그대의 참모습 찾으니 푸른 밀림이 생각나
옛날을 회상하며 황혼에 섰노라
오직 차 달이던 우물만 남아
옛처럼 돌 뿌리에 있구나
四仙曾會此
客似孟嘗門
珠履雲無迹
蒼官火不存
尋眞思翠密
懷古立黃昏
唯有煎茶井
依然在石根

여기에 등장하는 사선화랑이란 신라시대의 화랑인 永郎, 述郎, 安詳, 南石 의 네 화랑을 말함이다.

이시는 일찍이 신라시대 사선화랑을 비롯한 화랑들이 만난 한송정에는 마치 제나라의 맹상군이 위세를 떨쳐 그의 문전에 성시를 이룩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자취가 간곳없다는 인간의 영고성쇠를 무상함을 읊는 시이다.

그러나 이들 화랑들이 사용한 다기와 그리고 다회는 대자연의 영교를 벗삼는 敬和(경화)와 인간 상호간의 敬和와 信義의 江과 대자연과의 영교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眞性の 自得수련에 넘쳐 있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日本武家들의 다회처럼 威勢의 誇示나 어떤 戰略또는 政略적인 것은 추호도 없었다.

특히 화랑들이 즐겨 쓴 경포대의 차부뚜막과 한송정 등에 썼던 돌부뚜막, 돌못, 돌우물 등은 그들 고유의 고정식 독창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보는 일본 무가들의 위세를 과시한 다회 또는 황금다회, 정략적인 또는 전략적인 다회는 엿볼 수 없다. 여기에서 잠깐 일본무사들의 다회를 언급해 보기로 하자.

1482년 아시가가요시마사는 권세를 과시하는 다회를 동산산장 慈照院 銀閣에 造營하여 권세의 극치를 과시하였다. 그러다 1483년 호화찬란한 銀閣으로 다회를 옮겨 그의 부와 권세를 과시했다.

그런가 하면 오다노부나가는 서기 1573년 11월23일 京都妙覺寺에서 마즈에고우센(松江隆仙), 쥘르다슈우규우(津田宗久)만을 손님으로 모신 호화의 극치를 이룩한 전략적인 다회를 개최하였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도요토미히테요시(豊臣秀吉)는 1586년 1월 16일 그가 關白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른 답례라는 미명하에 禁中小御所에서[黃金의 茶會]를 개최하여 그 권세와 그의 정략을 보내지 않았던가. 이때 다실의 천장, 벽, 기증, 문살 등까지 황금 일색으로 하였으며 천황폐하를 비롯한 귀빈들을 모셔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이때 그는 쉐리큐(千利久)를 茶頭로 삼지 않았던가.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일본 무가들의 다회와 사선다회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화랑의 사선다회의 다도정신을 요약하면 대자연에 대한 靈交와 더불어 敬和정신 그리고 대자연과 영교와 더불어 眞性を 깨닫는 自得修行 그리고 화랑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信敬心과 相和하는 정신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선화랑다례에서는 돌부뚜막, 돌못, 돌우물 등 자연 그대로의 것을 사용한 독특한 독창성과 더불어 다회의 검소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하여 이와 같은 다회 정신을 요약하면 바로 和 敬 儉 眞으로 요약할 수 있다.

3.1.3 茶禮에 表現된 韓國 茶道精神

왕이 명절때나 태후 책봉 또는 태자 책봉 후에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또 신하들이 올리는 차와 술을 받고 그 후 차와 술을 태자,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의식으

로서 왕이 왕자 및 신하들과 더불어 태평성대를 누리는 행사이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게 되며 왕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다짐이 되기도 하였다. 대관전연 의식다례의 다도정신은 신하가 임금을 공경하고 또 신하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는 정신을 기르는데 그 정신이 있다고 하겠다. 고로 대관전연 의식다례의 정신은 화,경(和,敬)이라 하겠다.

고려에서 연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왕건의 훈요6조에 의한 팔관회와 연등회이다. 팔관회는 고구려의 유명한 스님으로 신라에 귀화한 혜량법사(惠亮法師)의 주청으로 시작되어 당시 중국 육조(六朝)에서는 여덟가지의 악을 관폐한다는 의미에서 팔관제(八關齋)가 이룩되어 불교의 팔계(八戒), 즉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茹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 불좌고광대상(不坐高廣大牀), 불착화만령락(不着華鬘瓔珞) 및 불습가무희악(不習歌舞戲樂)에 관한 제식이 있었으나 고려시대에서는 이름은 같으나 내용과 성격이 달라졌으며 연등회와 더불어 팔관회는 궁중의 큰 행사였었다.

왕건의 훈요 6조에 의한 팔관회는 천령(天靈)과 오악(五嶽),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의식이라 하였다. 이 의식은 겨울에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다.

음력 11월 15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다. 팔관회는 신라 때부터 있어온 행사이다. 신라 효공왕 2년 서기 899년부터 공양왕 4년 서기 1392년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귀중한 행사이다.

원래 팔관회도 그 이름은 불교에서 비롯되었으나 의례의 내용은 크게 달라 옛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하늘을 제사 지내고 명산, 대천, 용신들을 섬기는 전통을 계승하는 의식이었다고 하겠다. 또 팔관회는 소회와 대회가 있었는데 소회는 송도(개성)에서 음력 11월 14일에 거행되었고 대회는 서경(평양)에서 10월 15일에 거행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팔관회는 하늘에 대한 제사 그리고 명산, 대천과의 령교(靈交) 그리고 임금과 조상을 섬기고 상호간에 차를 매개로 하여 화목을 도모하는 의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 및 명산, 대천과의 차를 통한 영교를 맺는 차의 진성을 알 수 있고 화목과 공경하는 정신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차정신의 진(眞) 경(敬) 화(和)를 엿볼 수 있다.

연등회 다례도 팔관회 다례와 더불어 중국 육조에서 성행한 것으로 신라때에도 있어 왔다. 그후 고려시대에도 성행하였으나 고려 때의 것은 신라 때의 것과 내용, 성질에 있어 다소 달랐다.

연등회는 음력 2월 15일에 거행되는 고려의 큰 명절이다. 연등회대회 때에는 임금님이 참석하는 가운데 부처님을 섬기는 엄숙하고 경건한 다례가 거행된다. 먼저 그 내용을 여기에 간단히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왕이 편전 예를 거행한다. 그 다음 다방은 과일상을 임금 앞자리에 설치한다. 좌우에는 꽃상을 설치하고 술상은 그 남쪽에 설치한다. 임금님을 가까이 뵈시는 근시관이 차를 올리며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관은 임금이 거쳐하는 궁전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차를 공손히 권한다. 술과 음식을 올릴 때에도 집례관은 임금이 거쳐하는 궁전을 향하여 몸을 깊이 숙이고 정중히 권한다.

뒤의 모든 행사도 이와 같은 예절을 본받아 한다. 그리고 태자 이하 임금을 가까이 뵈시는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데 차가 오면 집례관이 찬배(贊拜)하라는 말을 크게 지르면 태자 이하 모든 신하들이 두 번 크게 절하며 또 집례관이 찬음(贊飲)하라고 크게 외치면 태자이하 모든 신하들이 모두 차마 시기를 시작한다. 차 마시기가 끝나고 나면 읍례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과 태자, 중요한 신하들이 한자리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또 차를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아 마시는 일들은 부처님과 임금과 신하가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인 동시에 임금은 신하를 아끼고 신하는 임금을 우러러 모시는 화기애찬 다례라 하겠다.

이 다례에서 우리는 임금님을 비롯한 태자 중요한 신하들이 부처님을 숭경하는 경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경사상과 자비로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는 화정신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의 다도정신은 화,경으로 귀착된다 하겠다.

3.1.4 茶書에 나타난 韓國의 茶道精神

한국의 다서는 초의선사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초의선사의 다서를 중심으로 여기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초의선사의 다서 중에 한국의 다도정신을 표현한 것으로서는 동다송을 들 수 있다.

동다송 29송의 주역에 보면 여기에서는 만전서(萬全書) 포법(泡法)을 인용하여 평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평할 것 같으면, 차를 달때에는 그 묘(妙)를 다해야 하고 차를 만들 때 있었어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물에 있어서는 진수를 써야하고 차를 다리는데 있어서는 중화(中和) 즉 알맞게 탕수를 다려야 하며 차의 체가 되는 물과 차의 정신 즉, 기운이 되는 것이 상화(相和) 즉 서로 잘 어울려서 그 빛이 맑고 건실하며 그 간맞음이 신령스럽게 상합(相合)되어 즉, 건과 영이 서로 상화(相和)되어 잘 어울려야 한다. 이 두가지가 잘 조화된 경지에 이르렀을때 다도는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評曰 採盡其妙 造盡其精 水得其眞 泡得其中 體與神相和 健與靈相併 至此而茶道盡矣

여기에서 우리는 차의 정신이 되는 기운과 차의 체가 되는 물이 잘 중화되어 즉, 알맞게 어울려져야 비로서 차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다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차의 건과 영이 서로 상화되도록 차를 달이는데 있어 중화 즉, 가장 알맞게 상화되어야 한다는 화 정신과 이렇게 될 때 다도는 이루어진다는 즉, 다가 도의 경지인 진성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도정신의 화정신과 도에 이르는 진성 정신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또 다서에 나타난 한국다도 정신을 엿봄에 있어 동다송 본문 30송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초의선사는 宋나라 시인 진간체의 시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다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玉花茶한 잔 기울이니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 일어
몸 가벼워 淸境에
나르는 듯 하여라
一傾玉花 風生腋身輕 已涉 上淸境

이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윽한 옥화차를 한잔 마시니 마치 당나라의 同이 차를 마시니 두 겨드랑 밑에서 싱그러운 맑은 바람이 이는 것을 능히 알리라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 몸은 한없이 가벼워 청경(淸境)에 나르는 듯 즉,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듯 하였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차의 청화함과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하는 진성정신을 감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의선사의 동다송 마지막 구절인 본문 31송을 여기에 들어 보기로 하겠다.

明月은 촛불 그리고 나의 벗
 흰구름은 나의 자리 의한 병풍
 대나무 짓대소리 솔바람 소리
 시원도 하여라
 淸寒함 뼈에 저려
 心肝마저 시원하네
 아!회구름 밝은 달
 두손님 한자리에 모시고
 茶마시니 道人の 자리
 이보다 더하라
 明月 爲燭兼 爲友 白雲 鋪席因作屏
 竹籟松濤 俱簫涼 淸寒瑩骨 心肝惺唯許
 白雲明月 爲二客 道人座上 此爲勝

명월은 촛불 나의 벗 흰구름은 자리이며 병풍 대나무 솔바람 소리 청화함 뼈에 저려 마음과 간장까지 조용함과 깨달음을 가져온다는 표현을 淸和정신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眞性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 구절인 차마시니 도인의 자리 이보다 더하라 하는 구절은 차를 마시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가져오는 도인의 자리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차의 진성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차정신의 청화함과 깨달음과 이어지는 진성임을 능히 알 수 있다.⁹⁾

3.2 日本의 茶道情神

3.2.1 우라센케 茶道情神

우라센케다도는 초심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도,학,실’ 3요소로 구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조예를 깊게 만들어 준다.

첫 번째, 손님 접대를 몸으로 익힐 수 있다. 다도에서의 손님 접대법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보다 좋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가령 손님에게 맛있는 차를 올리기 위해 다실을 가꾸고 계절의 꽃을 꽃는 등 목적에 맞게 연출하는 것은 손님께 만족감과 넉넉함을 주기 위해서 이다.

예도 말기에 이이 나오스케라는 다인은 다도에 심취하여 다탕일회집 이라는 책을 남겼다. 그에게 다회는 일기일회의 만남이었다. 찻자리에서 주인과 손님으로 되풀이해서 만나더라도 오늘의 만남은 다시 돌아 올 수 없는 일생일대의 만남이

9) 韓國茶文化學 (정상구)

다. 그래서 주인은 만전을 기해 작은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손님 역시 같은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주인이 준비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심있게 보고 마음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다도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기일회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몸가짐이 보다 아름다워진다. 다도에서의 몸동작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움직임이며 아름다운 형태이다. 바르고 아름답게 배치법 등 일상생활의 작법들을 익히는데 습관이 되면 일상은 세련됨과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일본 정통의 의례와 습관을 알 수 있다. 데마에 작법의 올바른 규칙은 유교에서 일컫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오상(인의예지신)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스승과 친구를 대하는 예법, 경조사 의 예법, 절하는 예법 등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운 예법 등을 다도는 오늘날까지 잘 전승하고 있으므로 몸으로 체험해서 배울 수 있다. 일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번째, 미에 대한 감성을 닦을 수가 있다. 주인은 자신의 감성으로 그날 다회를 연출해 손님을 맞이한다. 손님 또한 주인의 감성적인 연출을 통하여 자신의 감성을 높여갑니다. 그 연출 속에서 많은 다도구를 만나고 옛날부터 전해온 미술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을 기릅니다. 계절과 데마에에 어울리는 다도구의 명칭을 통하여 선인들의 감성을 배우고 또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특히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종합문화라는 다도를 배움으로써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낼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심신의 건강에 주목할 수 있다. 에이사이 선사가 쓴 깃다양생기에서 차는 양생의 선약이며 장수의 묘술로 소개되어 있다. 즉 차는 생명을 키우는 신선 묘약이며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다양한 약효가 쓰여 있어 당시에는 건강에 좋은 음료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으로서의 효용에 대해 적고 있다. 무로마치시대가 되면 다도는 문화적인 위치를 가지면서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차는 이런 개념에 잘 맞다. 인간의 정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유익하며 동시에 건강 면에서도 효용이 크다는 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증명

되어 왔다.

여섯 번째, 자국의 문화를 배우는 일은 국제화 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준다.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과학 문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졌다. 외국인들이 일본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일본문화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다도에서 길을 찾고 탐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처럼 다도는 해외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인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색한 외국 사람인 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모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때 다도를 통해 지혜를 익혀둔다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우라센케15대 호운사이 종장이 그 생각을 차 한잔으로 평화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랫동안 다도포교에 전력해왔다. 다도는 삶의 방식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아가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다도정신이라고 하면 센노 리큐가 주장한 화경청적 이라는 네 글자 속에 집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사규라 하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화(서로 사이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일찍이 쇼토쿠태자는 17조의헌법 앞머리에 화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삼는다. 라고 주창했다. 각자의 직분을 지켜 화의 정신으로 모든 것에 임하는 일이 국가평화의 핵이라 설명하고 있듯이 화는 인간사회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 경(서로가 존경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듯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맑음 뿐만 아니라 마음속이 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령 비오는 날 도로 옆을 걸다가 지나가는 차가 흠탕물을 튀겨 옷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다. 옷에 묻은 흠탕물은 봐서 곧 알 수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깨끗해 질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묻은 먼지와 때는 좀처럼 깨닫기가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형태로 나타난 것은 금방 알 수 있지만, 마음속처럼

형태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오염과 혼탁함을 없애는 것이 청의 마음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기분을 청정히 하고자 하는 바르고 순수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갖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갑자기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예습을 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하고 후회를 한 경험은 누구라도 있을것이다. 나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두는 일을 적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러한 화경청적의 가르침은 다도를 행할 때 중요하게 의식해야 하며 실제로 테마에를 할 때나 손님이 되었을때 이를 응용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갖는게 중요하다.

3.2.2 리큐의 茶道情神

리큐가 어느 날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대체 다도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그 질문에 대해 리큐는 차는 마시기 좋도록 내며 숯불은 찻물이 잘 끓도록 피우며 꽃은 들에 핀 것처럼,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시간은 조금 일찍이 서두르며. 맑은 날에도 우산을 준비하고, 같이 온 손님에게 마음을 기울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는 그 정도라면 누구나 아는 당연한 것이기에 일부러 질문할 필요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불만스러운 듯이 다름과 같이 말했다. 그 정도쯤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러자 리큐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다회를 해 보거라, 만약 그대로 된다면 내가 너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쇼레소킨선사는 “리큐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하였다. 조과도림 선사가 제자에게 모든 악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어린 아이조차도 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면 여든 노인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의 이야기는 남방록에 있는 유명한 일화이다.

누구라도 선한 행동을 하지 악행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부모에게 배워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알

고 있는 것, 매우 당연한 것을 실제로 행하고자 하면 좀처럼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리큐의 일곱가지 가르침의 의미를 단지 표면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 오늘날까지 리큐철칙이 다도의 원칙적 가르침으로 대대로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이유에는 이 말이 단순히 표면적인 일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고 폭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다도가 단순한 예능이나 유희와는 달리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진 하나의 문화체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리큐의 일곱가지 가르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차는 마시기 좋도록 낸다.

차를 맛있게 낸다는 뜻이지만, 혀로 느끼는 맛으로 '마시기 좋게'라는 의미로는 부족하다. 손님에게 맛있는 차를 올린다고, 주인의 참 마음이 없이 값비싼 차를 내어 드린다고 손님이 만족해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러한 물질적인 혀로 느끼는 미각의 만족보다는 주인과 손님의 마음과 마음이 진실로 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리큐는 가르치고 있다.

다음에는 숯불은 찻물이 잘 끓도록 피운다.

단순히 해석하면 숯은 불이 잘 일어나도록 피우면 된다는 뜻이지만, 찻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숯이 잘 타도록 공기구멍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숯을 잘못 다루면 불은 꺼지고 만다. 숯불이 타 오를 때까지의 시간도 피우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그 목적에 맞도록 숯을 피우는 것이 숯불 테마에이다. 이것도 첫 번째 가르침처럼 그 의미가 단순히 숯에 관한 지식이나 테마에 기술의 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꽃은 들판에 피어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도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아름다움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다실의 꽃을 말할 때 들판에 피어있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들판에 피어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와 화병에 담으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다실의 꽃으로서 의미를 잃어버린다. 리큐는 분명 자연스럽게 피어있는 꽃이야 말로 아름답고 존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꽃이 갖는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존엄성을 살리는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다도에서 더운 여름날 손님을 맞는 좋

은 방법으로는 이른 아침(오전6시경)에 찾자리를 갖는 아침다사가 있다. 아침다사는 여름 아침의 청량함을 느끼게 하며 적극적으로 여름나기를 위한 찾 자리이다. 시원한 얼음이 연상되도록 유리도구를 사용하거나 과자로 청량감을 연출한다. 여름은 시원하게 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러한 아침다사를 아는 것도 좋은 공부라 되겠다. 또 ‘겨울은 따뜻하게’라는 의미는 추운 겨울일수록 따스함이 느껴지게 손님을 모시라는 뜻이다.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처럼 참으로 지내기 힘든 계절에도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와 창의적인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은 조금 일찍 서두른다. 약속시간과 정해진 일을 지키는 것은 생활의 기본 매너라 할 수 있겠다. 가령 일상에서도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라는 의미이다. 이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인 것 같다. 복잡 다양화된 현대에서는 가령 적은 시간일지라도 이를 낭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능률적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시간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일은 지금이나 리큐시대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덧붙여 맑은 날에도 우산을 준비한다.

리큐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기상정보가 발달하지 않았다. 또 비가 많은 일본은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이는 비 뿐 만 아니라 갑작스런 사태에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이도 다른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쉬운 듯하나 실제로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다도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는 침착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게이코를 쌓다보면 자연스레 몸에 익숙해진다.

또 다른 내용으로 자리를 같이한 손님에게 배려를 한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먼저하십시오’라는 말을 잘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줄을 섰기 때문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다지 실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도에서는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손님 간에도 서로 마음을 열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실에서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서로가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인정은 타인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에도 있듯이 인정을 베풀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말처럼 가능한 상대에게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에는 ‘안녕하십니까,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도 쉽게 생략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밝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배려함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그 실천에 힘쓰기를 바란다. 이상과 같이 리큐의 일곱가지 가르침인 리큐칠칙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결국 리큐칠칙은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다도의 가르침인 화경청적이라는 이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다. 따라서 이는 다도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지라 하겠다.

3.2.3 와비의 茶道情神

와비는 다도에서 가장 중요시되며 궁극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왜 다도에서 와비를 중요하게 여길까 이유는 차가 선과 밀접하며 무로마치시대에 성행한 렌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방록에는 와비의 진정한 마음은 청정하고 무애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라 적고 있다. 초암차, 이후에 와비차로 통하는 다도가 시작된 것은 무라타 슈코에서 비롯된다. 그는 차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히에사비를 사용했다. 다케노 조오 시대에 비로소 와비차가 인식되면서 정직하고 깊이 침잠하며 가볍지 않은 모습을 와비라 표현하고 있다. ‘남방록’속에 조오가 와비를 표현한 노래라 해서 항상 애송되는 후지와라 테이카의 노래가 있다.

‘건너다보면 벚꽃도 가을 단풍도 지고 없네 바닷가 초막집에 지는 가을저녁놀’
조오는 봄,여름을 지나 만추의 저녁 무렵으로 넘어가는 계절과 그 경치에 와비를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화려한 꽃과 단풍이 없는, 단지 바닷가에 세워진 소박한 초막집이 있는 풍경을 말하고 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가볍지 않은 모습, 그것이 조오가 느끼는 와비의 모습이었다. 리큐의 와비는 조오와는 사뭇 다르다. 같은 남방록에 리큐의 와비를 표현했다는 후지와라 이에타카의 시를 보면
‘꽃피기만을 기다리는 이에게 눈 쌓인 산마을 눈 사이 봄 새싹을 보여주고 싶구

나.’

조오는 꽃과 단풍이 진 가을 저녁 무렵에 와비가 있다고 했지만 리큐는 겨울 끝에서 봄을 맞이할 때 와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꽃도 단풍도 눈 속에 묻힌 순백의 은세계 속에 작은 새싹을 보고 봄의 도래를 예견하게 하는 것에 와비가 있다는 것이 리큐의 와비이다. 조오가 말하는 바닷가 초막집의 와비로서는 아직 부족하므로 무일물의 세계에서 성장한 미래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려한 세계도 초막집이라는 사비한 세계도 넘어선 청정무애한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생명력, 그것이 리큐의 와비였다.

리큐의 도가란 우라센케 11대 겐겐사이 소시즈에 의해 리큐의 가르침을 와카(일본 고유 형식의 시) 형태를 빌려 다도의 마음과 데마에의 작법 등을 초심자가 알기 쉽도록 31자의 문자로 정리하여 1백수로 된 와카집이다. 그중 몇 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한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야 말로 비로소 스스로 그 길의 스승이 되느니’ 도가 1백수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노래이다. 이것은 다도를 배우는 이의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다. 다도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자기 안에 훌륭한 스승이 만들어 졌다는 뜻이다.

다도란 단지 찻물을 끓여 차를 내어 마시는 일임을 알지니라

다도의 본 뜻을 한마디의 말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해보면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리큐는 단지 찻물을 끓여 차를 내어 마실 뿐이라는 그 경지를 가르치고 있다.

케이코라는 것은 하나부터 배워 열을 알고 열에서 처음 돌아오는 그 하나

케이코의 수업은 1의 첫 단계에서 시작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0단계까지 가더라도 다시 처음 첫 단계인 1로 돌아와 반복하고 다시 더 높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능숙하게 되어도 기본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케이코를 반복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 이것이야 말로 달인의 기본이 되느니

모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처음 대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야 말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가?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여 본질을 추구한다면 그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정식 다회, 즉 다사는 가이세키라는 요리를 즐기는 가운데 술잔을 주고받고 담소를 즐긴 다음 다과를 먹는다. 이것은 프랑스 요리에서 와인을 곁들인 풀코스 요리의 마지막에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데 프랑스 요리와 다사가 다른 점은 차가 식후의 음료수가 아니라 다사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요리도 즐겁게 먹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매너가 필요한 것처럼 다사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게이코를 배울 필요가 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을 일상다반사라고 하지만, 다사는 식사를 마친 다음 차를 내는 것으로 일상생활 그자체가 기반이 된다. 다사는 이러한 기반 위에 '손님을 맞이하는 차의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 살려 낸 것이라 하겠다.

'모신 손님을 최고의 귀빈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다도의 가르침은 손님 맞을 때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주인은 손님의 마음이, 손님은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서로 배려한다면 감사의 마음도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오늘날 다도작법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생활의 매너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몸에 익으면 번거롭지도 않을뿐더러 무의식적으로 그 법도에 따라 생활하다보면 아무런 당혹함 없이 손님을 접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다사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는 오요세다회와는 달리 초대받은 손님이 정각에 모여 4시간여 동안 그날 테마에 맞게 갖는 정식 다회를 말한다.

나카다치 라는 중간 휴식을 넣어 2부로 구성되며 전반부를 초좌 후반부를 후좌라고 한다.초좌에는 가이세키와 과자를 대접하고 후좌에는 고이차와 우스차를 대접한다.

가이세키는 옛날 수행승이 공복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온돌을 가슴에 넣어 품었던 것에 연유해서 잠시 공복을 달래는 가벼운 식사를 말하며, 일즙삼채(된장국과 세가지의 찬)의 소찬을 기본으로 한다.

가이세키는 어디까지나 후반부에 나오는 고이차를 맛있게 마시기 위한 식사이다. 주인은 그 계절의 꽃과 가이세키 메뉴에 세심한 정성을 The고 다도구 구성에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다. 이렇듯 다사는 주인과 손님이 일기일회에 맞게 약 4시간

짜리 드라마로 전개되는 것이기에 주인도 손님도 서로에게 배려하고 한때를 즐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다사는 열리는 시간과 내용에 따라 정오다사,아침다사,밤다사,식후다사,불시다사 그리고 자취다사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오다사의 흐름과 손님을 맞는 마음에 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사 당일 주인은 대문 앞에 물을 뿌려 손님을 맞이한다. 마치아이의 족자를 보고 그날의 테마를 추측한다.

로지에는 촉촉이 물을 뿌려 놓고 세키모리라는 돌을 놀아 다실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츠쿠바이에는 신선한 물을 담아둔다.

다실안의족자는 다회의 중심이 되므로 주인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주인과 손님의 인사가 끝나면 주인이 직접 식사를 나르며 손님을 대접한다. 이것을 최고의 대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요리는 사치를 부린 것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좋다.

재철의 재료를 사용한 소박한 식사(일즙삼채), 주인과 손님이 주고받는 술잔을 일본의 전통적인 치도리술잔이라 하는데 주인은 손님 한사람 한사람에게 술을 따르고 안주를 담아 드리며 손님과 환담을 나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숯불을 피우고 그날의 테마와 계절에 맞는 과자를 낸다. 과자는 다도와 함께 정성을 다하는 것중 하나이다.

주인이 가이세키 식사 후에 방 분위기를 바꾸고 고이차 준비를 하는 동안 손님은 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한다. 로지는 촉촉하게 물을 뿌려 놓는다.

고이차 준비가 끝난 다실에는 물을 듬뿍 머금은 꽃을 놓는데, 이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 나타난다.

미즈야(다실부엌)에서 깨끗하게 준비한 도구를 손님이 보는 앞에서 후쿠사를 접어 다시 닦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닦아 상대를 높이는 정신이다. 술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한 잔의 고이차를 찾자리에 모인 일동이 돌려 마신다.

편히 더 계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숯불을 다시 피우고, 담배쟁반을 꺼내 손님 앞에 내고 손님을 편안하게 모신다. 우스차 찻 자리에서는 손님과 주인이 서로 다담을 나누면서 차를 마신다.

로지에 세 번째 물을 뿌려 퇴실할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은 오늘 대접받은 다회

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끝내고 퇴실을 한다. 주인은 차 술을 바로 치우지 않고, 하루를 뒤돌아보며 자신도 차 한잔을 음미한다.¹⁰⁾

현재 일본에서 소위 ‘와비차’로 일컬어지고 있는 차노유의 형식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발단은 리큐의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차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간바쿠(천황을 보조하여 정무를 맡아보던 최고의 중직)였던 히데요시까지도 거의 리큐의 차노유에 심취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리큐를 스승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리큐의 차노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또한 리큐는 주코와 조오로부터 이어지는 와비차를 어떠한 형식으로 완성시켜 갔는가?

리큐는 사카이 출신으로서 60세 까지 사카이에 거주한 사카이의 차인이었다. 리큐의 차노유에 대한 기록은 ‘텐노지야 카이키’ ‘마츠야 카이키’ ‘소탄 닛키’ ‘난보로쿠’ 등에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차 회기들을 통해 리큐의 와비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리큐가 지향한 와비차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난보로쿠에서는 리큐가 지향한 와비차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소에키(리큐)가 어느 날 슈운암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차노유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난보소케는 소에키에게 차노유의 근본을 원래 다이스¹¹⁾에 있으나 차의 마음이 구멍되는 점에서는 초암의 좁은 공간에 견줄만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소에키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좁은 공간에서의 차노유는 첫 번째가 불법으로 수행하여 도를 얻는 것이다. 집을 호화롭게 한다거나 진귀한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속세의 일이다. 집은 비가 새지 않으면 되고, 식사는 굶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부처의 가르침이기도 하며 동시에 차노유 본래의 의미이기도 하다. 스스로 물을 옮기며 장작을 베어 와서 물을 끓이고 차를 낸다. 우선 부처님 앞에 바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푼 후 자신이 마신다. 또한 꽃을 꽂고, 향을 피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조상들이 수행한 것을 우리들이 본 받은 것이다. 이 이상의 상세한 것은 그대가 깨닫고 명확하게 밝혀 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것은 난보로쿠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으로 리큐 다법의 근본정신을 말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리큐는 차노유의데마에 형식을 2가지로 보고 있다. 그 하나는 다이스 위에 장식된 풍로에 의한 ‘다이스테마에’로 이것을 리큐는 다법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다. 다이스테마에는 8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넓은 서원에서 행해지는 쇼잉차의 다법이었다.

10) 日本茶道의 이론과 실기(우라센케의 茶道) -재단법인 곤니치안-

11) 쇼잉차에서 사용되는 선반의 일종으로 풍로와 가마 등의 도구들이 장식됨.

다른 또 하나의 다법은 하코비테마에¹²⁾ 라는 것으로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행하는 초암차의 다법이었다. 초암차의 다법은 요시마사의 만년에 세상에 나온 주코에 의해 탄생되어 조오를 거쳐 리큐에게 계승, 발전된 차로서 쇼잉차와는 달리 다이스가 사용되지 않는 다법이다.

위에서 리큐는 다이스를 사용하는 다이스테마에를 다법의 근본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이스테마에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에를 바르게 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좁은 공간에서 행하는 하코비테마에는 다이스테마에보다는 간단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이것은 차노유의 기본은 쇼잉에서 행하는 다이스테마에이지만 차노유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초암의 좁은 공간에서 행하는 초암차, 즉 와비차라는 것으로 리큐는 쇼잉차의 형식적인 면보다는 초암차의 정신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리큐는 초암차의 목적을 불법을 통해 얻는 도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초암차의 정신적인 기반이 불교(선)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난보쿠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조오는 와비차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신고킨슈 속의 후지하라의 시인 ‘이 바닷가를 멀리서 바라보면 꽃도 단풍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객가의 뜰 집만이 보이는 가을 저녁이다.’라는 것과 일치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꽃과 단풍은 즉, 쇼잉다이스라는 정식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그 꽃과 단풍을 차분하게 천천히 진력을 다해 바라보면 결국은 무일물의 경지인 바닷가의 뜰 집이 전개되는 것이다. 때문에 꽃과 단풍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뜰 집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꽃과 단풍을 바라본 후 진력하여 체득한 후에야 비로소 뜰 집의 완전한 사비(한적하고 고담한 정서)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와비차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소에키는 와비차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한 수 더 발견하였으며 후지하라의 시와 함께 기록하여 차의 신조로 두었다. 그 시는 앞의 신고킨슈 속에 있는 이에타카의 시이다. “꽃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메 마을의 눈 속에서 싹을 틔운 풀의 봄을 보여주고 싶다.”

이 시도 앞의 후지하라의 시에 덧붙여 이해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의 산, 그리고 산 속의 꽃이 언제 필 것인가. 언제 필 것인가 하고 아침저녁으로 찾고 있는데 그 꽃과 단풍은 자신의 마음속에 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른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경치만 즐기고 있다. 이에타카의 시에 등장하는 산속은 후지하라의 시에 나오는 바닷가의 뜰 집과 같은 한적하고 고담한 상태(와비)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년간의 꽃과 단풍을 모두 눈이 덮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산이 되어버린 한적하고 고담한(와비) 세계는 바닷가의 뜰 집과 같다. 그러나 또한 그 무일물의 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감흥이 솟아나 막 물어 버린 눈이 봄이 되어 양기를 맞이하고 그 녹은 눈 사이에 여기저기 사뭇 푸른 어린 싹이 슬슬 한잎, 두잎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외부 세계의

12) 폴로와 술 이외의 차 도구를 가지고 와 차를 내는 것.

힘과 인공적인 의도를 더하지 않은 것에 그 진정한 도리가 있다고 세에키는 파악했다. 가도의 마음으로서의 미묘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 두개의 시는 조오와 리큐 이 두 사람이 차의 도에 뜻을 깊게 하고 여러 방면에 임하며 깨달음의 마음을 얻은 것은 도저히 나와 같은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다. 실로 존경해야 할 드문 도인으로 그 가르침은 차의 도에 관한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즉 그것은 석가와 조사가 설명하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와 같다. 거룩한 일이다. -

난보로쿠의 위의 장은 조오와 리큐의 와비차의 마음을 논하고 있는 장이다. 일본의 다도에서 보면 와비차라는 말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차노유와 와비차가 거의 동의어로서 인식되어 그만큼 와비라는 개념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와비라는 것은 기분 좋은 감정의 상태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로 비관적인 관념으로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미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즉 관념에서 일종의 경지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와비 그자체가 가지는 필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장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일 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다케노 조오의 와비는 이원 대립의 미에 그치고 있는것에 반해 리큐의 와비는 꽃과 단풍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제 4 장 結 論

이상 논한 바와 같이 나는 한국 다도정신을 한국의 禪宗寺院의 본질론에서 봄과 동시에 한국 다사에 나타난 다례 또는 다인들의 다생활 및 다서 그리고 대표적인 몇 분의 다시 등을 통하여 규명해 본 바 한국의 다도정신은 결론적으로 和, 敬, 儉, 眞 으로 歸着됨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 다문화는 한국의 禪宗寺院에 의하여 그 뿌리가 내려졌고 또 형성 성장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다도정신은 한국 선종 사원의 다생활의 본질론에서 그 뿌리를 찾는 방법과 그 또 하나는 茶史에 나타난 다례 또는 다인들의 다생활 및 多書, 茶時등을 통하여 규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 있어서는 서론에서 선종 사원의 다생활의 본질론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본론에 있어서는 다사에 나타난 다례 및 다인들의 다생활 및 다서, 다시 등을 검

13) 日本 와비차의 성립과 전개 p18~32

토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한국 다도정신을 한국 선종 사원의 다생활의 본질론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 선종 사원의 다 생활은 뭐니뭐니해도 첫째 淸和로왔다. 그러기에 다도 정신의 중요한 덕목으로써 첫째 和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선종사원에서는 崇佛敬拜생활의 연속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숭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敬사상이 중요한 덕목이 아니 될 수 없다.

셋째로는 선종사원의 다생활에 있어서는 精行儉德을 생활화하지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검소한 생활 즉 儉이 중요한 덕목이 아니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선종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리를 터득하는 일 즉, 깨달은 일이라 하겠다.

진리를 깨달은 일은 思無邪한 마음 바탕으로부터 시작된다 하겠다. 하여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사무사한 眞性이 또한 중요한 덕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것에서 볼때 한국의 선종사원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다도정신은 「和,敬,儉,眞」으로 귀결된다 하겠다.¹⁴⁾

센리큐에 의해 완성된 차 문화 다도는 사규 「和,敬,儉,眞」을 바탕으로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신을 배경으로 한 다사 행위가 중시된 일본 다도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차 문화는 불교와 더불어 유입되었으므로 대부분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승려들은 대중에게 이를 전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귀족들의 사치적 놀이에서 탈피하여 차를 마시면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려 하였고 16세기 선종의 영향을 받아 다도가 성립되었다.

또한 다케노 조오, 센리큐 등의 다인이 나타나 차를 마시는 것에 여러 가지 법도를 정하게 되고 차의 예, 형식, 작법 등과 차의 정신이 선종과의 결합을 통해서 정신 수양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그래서 센리큐는 선종에서 승려들의 생활양식인 「和,敬,儉,眞」을 차의 기본정신으로 정하고 이것을 통해 다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和,敬,儉,眞」은 바람직 한 다실의 분위기로 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14) 韓國茶文化學 -鄭相九-

參 考 文 獻

- 金藝學 - 『韓國의 茶文化』 현암사 1970
金明陪 - 『日本의 茶道』 서울:보림사 1987
李蓮子 - 『茶 요리』 초롱 1995
李蓮子 - 『茶가 있는 삶』 초롱 1998
朴銓烈 - 『日本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16』 나무와 숲 2000
(구도의 세계에 닿으려는 정신활동)
鄭相九 - 『韓國茶文化學』 기획출판국 1983
李其琬 - 『韓國의 茶文化』 1994
李貴禮 - 『韓國의 茶文化』 1992
李中諧 - 『茶와 冥想』 초의 1993
李其琬 - 『茶道』 대원사 1989
崔汜戌 - 『韓國의 茶道』 1989
爽用藝 - 『韓國 茶文化 강좌』 초의 2002
錠英琬 - 『韓國 茶文化』 서울 : 너럭바위 1994
李貴禮 - 『전계서』 1988
千竝識 - 『韓國의 茶道와 實習』 서울 : 아주대학교 1992
李爽業 - 『日本人과 文化』 학사원 1993
谷端昭夫 - 『近世茶道史』 東京 淡交社 1988
態倉功夫 - 『茶의 湯의 歷史』 東京朝日新聞社 1990
谷本陽藏 - 『茶道가 있는 暮』 東京草恩社 1993
永島福太郎 - 『利休의 茶湯大成』 東京 : 談文社 1993
田中仙翁 - 『茶道の 美學』 東京 : 講談社 1996
셴 겐시즈, 나야소탄 - 『日本茶道の 마음』 월간 다도사 2006
곤니치안 - 『日本茶道の 이론과 실기』 월간 다도사 2007
金暻愛 - 『日本 와비차의 성립과 전개』 2005
李花蓴 - 『茶道冥想이 精神健康에 미치는 영향』 200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전공	학 번	20048041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박미경	한문 : 朴美京	영문 : Park mi kyung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 금남맨션 407호				
연락처	E-MAIL: muanyol@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일다도비교연구 -양국의 다도정신을 중심으로- 영문 : korea and japan dado culture comparison research - centering on two countries dado sou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박 미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